



멕시코 야당, 2024년 대선에 단일후보 내세운다

멕시코의 주요 야3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3당 연합은 앞으로 다가 오는 멕시코시티 시장선거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를 단일화 한다는데 합의하면서 현 집권여당에 맞서기로 했다.

이미 지난 총선거를 앞두고 결성되었던 국민행동당(PAN), 제도혁명당(PRI), 민주혁명당(PRD) 등 주요 야3당이 주축이 되어 구축한 'Va por Mexico' 동맹은 작년 말 PRI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2028년까지 국내치안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 대한 헌법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야3당 균열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헤수스 잠브라노(Jesus Zambrano) PRD 총재와 마르코 코르테스(Marko Cortes) PAN당 대표는 알레한드로 모레노(Alejandro Moreno) PRI 대표와 지난해 가을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충돌한 바 있는데 더 큰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장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합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마르코 코르테스 PAN당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를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면서 "시민 사회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선거에서 야당을 대표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잠재적 후보들에 문호는 열려 있다" 면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에 참여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요 야3당 외에도 군소 정당들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



는데 여권 성향이었던 시민운동당도 한 때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인 단테 델가도(Dante Delgado)는 이를 부인했다.

이같은 야3당의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새로운 내부 균열도 나타나고 있는데 PAN과 PRI가 PRD와 상의없이 내년 대선과 시티 시장 선거의 후보 선출에 사전 합의를 했다고 PAN당 총재가 주장하고 있어 이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야 3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Vapor Mexico' 단일 후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야 3당 대표는 이를 두고 "우리는 세 정치세력의 연합체이지만 시민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연합체"라고 밝히 그 의미를 부여했다.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여당에 맞서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시장과 마르셀로 에브라르(Marcelo Ebrard) 외무장관이라는, 존재감이 뚜렷한

후보가 있는데 2024년 대선에서 집권 모레나당의 후보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로페스 오브라도

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총 43명이 대선 출마에 관심을 표명했거나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됐다" 면서 자신만의 야권후보 명단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현 집권당의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 3당이 연합체를 구성하며 단일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실제 성과를 낼수 있을지는 현 야권의 미지근한 결속력으로는 보아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해 차기 대선에서 현 집권당의 재집권이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멕시코 노동력 세계 9번째로 우수하다

다국적 채용 회사에서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멕시코의 노동력은 60개국 이상에서 9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npowerGroup의 TWI는 가용성, 비용 효율성 및 생산성 등 200개 이상의 요소로 국가간의 인력을 평가한다.

성과가 좋은 시장은 원격 인력 준비, 기술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격차 해소와 같은 추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2021년 TWI 53위에서 작년에는 무려 9위로 44계단 상승했다.

멕시코는 상위 10위 안에 든 유일한 남미 국가이기 때문에

급여 비용을 줄이면서 미국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적인 노동력을 찾는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비용 효율성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규제와 생산성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멕시코는 비정규직 아웃소싱과 하청업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Raquel Buenrostro 경제부장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400개 이상의 북미 기업이 아시아에서 멕시코로 재이전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3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5월 10일 어머니 날*	5월 10일 어머니 날*	
2월 06일 헌법의 날	9월 16일 독립기념일	9월 16일 독립기념일	
3월 20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일 망자의 날*	11월 2일 망자의 날*	
4월 06일~07일 부활절*	11월 20일 혁명기념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8.23	살 때	1,254
팔 때	19.28	팔 때	1,211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멕시코 "모든 공공장소 금연"...적발 땀 최저임금 절반 벌금

앞으로 멕시코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담배 제품을 광고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한 달 최저임금의 절반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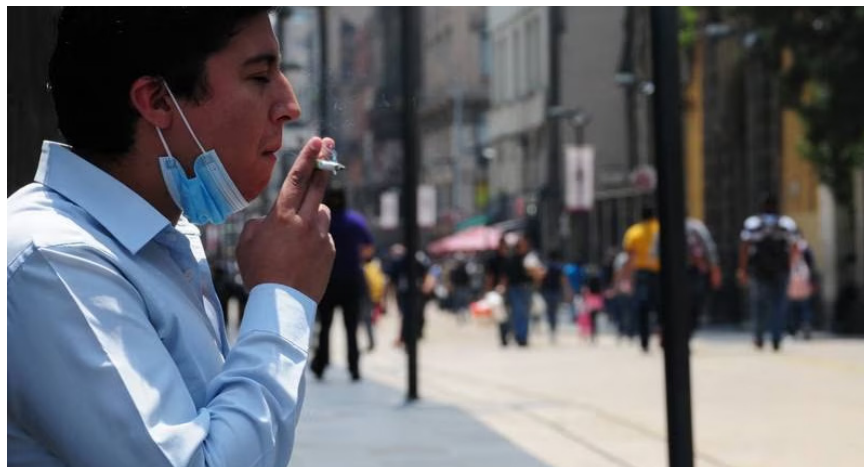
멕시코 매체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15일(현지 시간)부터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효했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과된 흡연규제 일반법 개정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금연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멕시코 내 흡연 금지 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학교, 공원, 놀이터, 해변, 경기장, 쇼핑몰, 시장, 호텔, 병원, 음식점 등 공공장소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뿐 아니라 테라스, 발코니, 공용 안뜰(patio) 등도 포함된다.

또 멕시코의 모든 매체에서 담배에 대한 광고, 판촉 및 후원을 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며 마트와 편의점 등 매장 내에서 담배는 아예 진열도 할 수 없게 된다.



전자담배 사용 역시 제한해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담배 연기 및 배출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벌금도 강화하고 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이를 어길 시 최대 3000페소(약 19만 7000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최저임금(42만 2091원)의 절반에 달한다.

또 1년 이내 재범의 경우 당초 부과된 벌금의 2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멕시코의 이번 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티안 모탈레스 전 범미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멕시코 지부장은 “담배와의 싸움에서 멕시코가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주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담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번 법령을 “당국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담배산업협의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산업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범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멕시코 내 경찰의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일부 경찰들이 실제로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기보다 이를 뇌물 수수의 구실로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뉴질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금연환경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5만뉴질랜드달러(약 1억252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안은 연령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줄어들 전망이다.

2050년이 되면 40세도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고, 50년 뒤에는 63세 이상부터만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DIGA
INMUEBLES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산업용 대형창고 임대 및 판매

몬테레이와 살티요에 근접한 위치 소재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최신 시설의 대형창고
물류 창고에 대한 고민이 해결 됩니다.

최소 4,000 m² (1,200평)
최대 50,000 m² (15,000평)

 사무실: 811-165-6005 / 812-584-9465

 이메일: digainmuebles@gmail.com

 홈페이지: www.diga-inmuebles.com

작년 멕시코 신차 판매, 12월에 정점을 찍었다

멕시코 통계청 INEGI는 12월 12만862대가 팔려 전년 동기 9만 7420대에 비해 신차 판매가 24% 성장했다고 밝혔다. 12월 최고치는 11월 판매량을 26.5%나 웃돈다.

신문 엘피난시에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매출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컴퓨터 업체의 칩 공급 부족으로 인한 침체에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멕시코의 회복세는 2021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22년 전체 판매량은 108만대를 기록했다.

이 데이터는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2019년 130만 대의 신차 판매를 기록한 팬데믹 이전 수치에 비해 17.6%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판매량은 멕시코 자동차 딜러 협회(AMDA)의 예상치를 11.3% 웃돌



았다. 기에르모 로잘레스 AMDA 사장은 "12월 결과는 브랜드별로 차별화됐지만 이전 지연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량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올해 시작한 멕시코의 불법 수입차 합법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멕시코 신차 판매 시장이 위축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미국산 중고차가 멕시코에서 합법화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미국에서 들어오는 중고차들은 경제적으로 새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나 가난한 시골 지역 농부들에게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대부분 불법적으로 들어온 차량들이다.

이외에도 멕시코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들여오면서 이 역시 신차 판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여 범 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무법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여 이들 차량들도 모두 세금을 내면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반면, AMDA(멕시코 자동차 딜러협회)는 이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자동차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철회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작년 한 해에만 약 20만대의 신규차량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생산과 물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차량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신차 판매 수준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신문 엘 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Finanzas - Fiscal - Legal Corporativo



홈페이지: www.fratelliconsultores.mx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금융, 세금, 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 및 컨설턴트

당사만의 특별한 고부가가치의 정보제공

-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립한 세무 및 법률 컨설턴트 업체
- 멕시코 정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 각 기업체마다 상이한 특정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서비스 정보 제공
- 미국, 멕시코 국경 물류의 핵심 정보와 지역 프로젝트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시간엄수 / 빠른 업무처리 /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신뢰 구축

주소: Eucalipto No. 208 Poniente, Colonia del Prado, Monterrey, Nuevo León, México, C.P. 64410.

사무실: 81 252-78218



+ 52 811 311 3084

이메일: atv@fratelliconsultores.mx

멕시코, 송유관 노리는 석유 도둑들 로 골머리..."하루 15억원 어치"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의 송유관
에 구멍을 뚫고 휘발유를 훔쳐가
는 사건이 늘고 있다.

레포르마, 인포바에 등 멕시코
매체들은 19일(현지시간) 국영 석
유회사 페멕스(PEMEX)가 지난해
하루 평균 휘발유 절도 규모를
6,100배럴로 공식 집계했다고 보
도했다. 직전 집계된 2021년 하루
평균 3,600배럴의 1.7배에 달하
는 수치다.

6,100배럴은 약 100만 리터에
달하는 양으로, 멕시코의 휘발유
값이 1리터 당 약 22~23페소
(1,430~1,500원) 정도인 걸 고려
하면, 매일 약 15억 원에 달하는
휘발유가 증발한 것이다. 이렇게
빼돌린 석유는 현지에서 리터 당
15페소(980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초에도 절도가 있었다.

페멕스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탄
화수소 전환을 위한 보고서'에서
"올해 1월 들어서 보름 만에 하루
평균 5,500배럴의 석유를 도난당
했다"고 적었다.

멕시코의 석유 절도 문제는 비단
지난해만의 일이 아니다. 2019년
에도 하루 평균 6,400 배럴, 2020
년에는 4,800 배럴이 도난당했다.
이렇다 보니 빼돌린 석유를 지칭
하는 '우아치콜'이라는 단어도 따
로 있을 정도다. 우아치콜은 불량
알코올음료를 뜻하는 말이다.

‘석유 도둑’들의 작업은 빠르
고 은밀하게 진행된다. 터널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땅굴
을 파고 들어간 다음, 송유관에 구
멍을 뚫어 정교하게 착유하는 식
이다. 지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드
론으로 감시하기도 까다롭다.

문제는 석유를 뽑아내다 폭발 사
고 등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 이달고 주
에서는 송유관의 휘발유를 훔치
는 과정 중 실수로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7명이 목
숨을 잃었다.

이에 연방 정부는 보안 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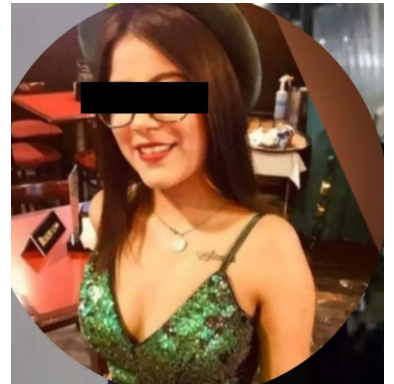
멕시코시티 女주지사, '여성 살해 은폐 의혹' 검찰 비판

멕시코시티주에서 20대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성 시장이 검찰이 이를 은폐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시티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
아리아드나 로페즈는 페미사
이드(여성 대상 살해·폭력)의
피해자였고, 모델로스 검사는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멕시코시티 검찰청은 지난해
10월 모델로스주 고속도로에
서 숨진 채 발견된 아리아드나
의 실종·사망과 관련한 정보
를 공개했다.

검찰청은 "시신에 대한 병리
학적 연구 결과 두부 외상으로
사망 원인이 확인 됐다"고 밝
혔는데 이후 클라우디아 시장
이가 모델로스 검찰의 은폐를
비난하는 성명 등을 내놓은 것



이다. 앞서 모델로스주 검찰청
은 아리아드나의 사망원인이
기관지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혀 시티 검찰청과 상반된 결
과를 내놓아 의구심을 샀다.

아리아드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성은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집 보안 카메라에서 아리아드
나를 메고 차에 싣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범죄 사실을 자백
했다.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페멕스
송유관 주변에 2,900여 명의 육군
과 국가방위군이 투입돼 상시 감
시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전국 6
곳에서 불법 석유관과 취유구를
확인하고 9만8,000 리터의 석유
를 확보하기도 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
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정례 기자
회견에서 "이달고 등지에서 석유
절도 행위가 재개되고 있다"며 일
부 지역 주민이 대가를 받고 우아
치콜 업자들을 감싸주고 있는 정
황도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상징적인 IMSS 영화관, 20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IMSS)
가 지었지만 2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멕시코시티의 상징적인 극
장이 금요일 재개관했다.

Linterna Migica 영화관은 도
시 남부의 Magdalena
Contreras 자치구에 위치해 있
으며 한때는 이 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화관 중 하나였다.

Adolfo Lopez Mateo 전 멕시
코 대통령(1958년~1964년)은
대중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
술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7개의 다른 도시에
서 IMSS가 운영하는 영화관을

운영했다. 그는 또한 주택, 진료
소, 스포츠 시설,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건설도 주도했다.

멕시코 시티에 있는 Linterna
Migica 영화관은 버려지다시피
해 영화관 건물은 황폐화 됐는
데 재개관을 위한 노력은 2019
년에 시작되었다.

멕시코시티 주민들의 어린 시
절을 애뜻하게 기억되는 곳으로
영화관으로 재개관 한다는 소식
에 향수에 찬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IMSS가

의약품 등 물자와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이런곳에 돈을 쓰는것
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재개관 기념으로 정부 관계자
들과 시민들을 초청해 영화 "로
마"의 특별 상영회를 열었다. 앞
으로는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
게 된다.

이번에 재개관에는 1,600만 페
소가 투입되었으며 극장은
IMSS의 '80주년 기념' 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토지 분쟁으로 오하카 고속도로 지연

내륙 도시 오아하카에서 태평양 연안의 주 해변 관광 지역에 이르는 오아하카 주의 새로운 고속도로는 완공을 얼마 안 남겨 놓고 두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 의해 봉쇄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주 초 트위터를 통해 "이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거리가 15km 남아 있지만 Sola de Vega와 San Vicente Coatlán 사이의 오래된 농업 갈등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두 고지대 공동체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양측에 좋은 제안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새로운 경로, 즉 우회로를 만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해당 고속도로는 애초 2009년에 공사 계약이 체결된 이후 약 20년 동안 토지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결국, 시공업자는 권리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

인수받은 회사도 2016년까지 공사 진척이 없자 결국 국가 인프라 기금(Fonadin)에서 맡았지만 지금까지 같은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체 공사구간에서 약 절반 정도가 완공된 상태다.

최초 계획대로라면 2015년 7월



에 완공이 목표였지만 이 기간은 계속 늘어나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타협의 가능성이 있어 작년말까지는 개통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폭 12미터의 2차선 고속도로로, 약 102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위험한 산악도로였던 131번 고속도로를 대체하기 위해 건설될 예정이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 오아하카에서 해안 목적지인 바이아스 데 화툴코(Bahías de Huatulco)와 푸에르토 에스콘디도(Puerto Escondido)까지의 이동 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2~3시간으로 단축된다.

한편, 지역사회가 분쟁을 중단한다면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겠다는 뜻일 대통령 직접 당사자들에게 제안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양측의 대립으로 보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전체 고속도로는 10개의 교량과 3개의 터널, 2개의 요금소

로 구성되며 완공되면 하루 4,253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바라카 라르가(Barranca Larga)의 요금 광장은 38%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며 이 광장에는 주방위군 기지, 태양열 농장, 행정 건물, 관제 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만약,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6개월 이내에 공사는 완공돼 유명 관광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창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누에보 레온,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에 2억 달러 투자

미국 기업의 멕시코 계열사가 누에보레온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고 전기차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전기차 제조업체인 Centro Electric Group의 수입 및 유통업체인 Centro Automotive Mexico는 몬테레이 국제공항의 OMA VYNMSA 에어로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해 1만436㎡ 규모의 최첨단 시설 공사가 시작돼 2023년 2분기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3년에 걸쳐 투자되는 2억 달러는 배터리 제조 시설과 회사가 멕시코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Centro 전기 그룹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다양한 소형 및 대형 EV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과 정부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번 달에 멕시코에서 첫 차량 생산 공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테슬라도 같은 누에보 레온 지역이며 생산된 차량을 실어나를 전용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어 배우실 분

19년 경력의, 최고의 강사가 여러분의 스페인어 학습을 도와 드립니다

교수: Daniel Ibañez

경력: 관련학과 졸업, UNAM대 Cepe 학습

대상: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모두 가능

스페인어 자격시험(dele), 학생들 숙제, 회화 등 스페인어 관련 개인 교습

문의: Cel. 5531272866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몬테레이 / 시티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 ◆취업비자 \$10,000
-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 ◆비자연장 \$5,000
- ◆국적변경 \$4,000
- ◆이민서류 교환 \$4,000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메일: rsalas@ryfconsulting.mx / ysalas@ryfconsulting.mx

여론조사, 대통령 후보로 시티 시장보다 외무장관 더 선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시티 시장이 집권 모레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후계자로 더 이상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최근 치명적인 지하철 사고가 지난해 10월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 여시장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El Financiero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레나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3분의1(33%)이 2024년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로 쉐인바움을 지명했다. 이는 신문이 지난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해 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는 1월6일, 7일, 11일에 실시되었는데, 이는 1월7일, 한 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이 부상자를 낸 3호선 지하철 사고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르(Marcelo Ebrard) 외무장관은 현재 모레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모레나 대통령 후보로 35%의 응답자가 그를 첫 번째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같은 기관의 이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아단 아우구스토 로페스(Adan Augusto Lopez) 내무장관과 리카르도 몬레알(Ricardo Monreal) 모레나당 상원의장이 각각 20%와 9%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

2024년 멕시코 대선에서 현 집권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모레나당 지지자(당원)들의 시각이 특히 중요하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800명의 응

답자들 중에서 시티 시장의 인기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선호하는 모레나당 대통령 후보였다.

모든 응답자들의 선호도 상승은 에브라르 외무장관, 로페스 내무장관, 몬레알 상원의장으로 모아졌지만 유일한 여성후보라는 점에서 아직도 그녀의 인기는 비록 감소하기는 했지만 언제나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시티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사건들은 2018년 말에 취임한 현 시장에게는 다소 역울한 면도 있는데 이번 사고 외에도 2021년 5월 12호선 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승객 26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1월 지하철 도심 변전소 화재

로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등 유독 지하철 사고에서 시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다수의 사망자를 낸 12호선 참사는 셰인바움 현 시장과 에브라르 외무장관 모두에게 대선 후보로 큰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모레나당 내에서 이들보다 우위에 있는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견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야권도 포함이 되었는데 지난주 내년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합의한 바포르 멕시코(Va por Mexico) 3당 연합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Enrique de la Madrid 前 연방관광부 장관이 23%의 지지율로 선두에 나섰고 Lilly Tellez 상원의원이 22%로 뒤를 이었다.

1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다른 야당 후보로는 Claudia Ruiz Massieu Salinas 상원의원 (PRI) 15%, Santiago Creel(PAN) 12%, Beatriz Paredes Rangel 상원의원(PRI) 11%, Mauricio Kuri 케레타로 주지사(PAN 11%로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엘 차포, "미국 감옥 싫어, 멕시코 감옥으로 갈래"

미국 감옥에 갇혀 있는 멕시코의 전설적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65)이 자국 대통령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2017년부터 미국에서 복역 중인 호아킨 구스만은 현재 햇빛도 없는 감옥에서 질 나쁜 음식을 먹으며 면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종신형+30년형'을 선고받고 콜로라도 중범죄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호아킨 구스만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 보내는 본국 송환 요청 메시지를 자신의 옛 변호인에

게 전달했다. 2015~2018년 미국에서의 재판 등에서 호아킨 구스만 변호를 맡았던 호세 레푸히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멕시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아킨 구스만이 자신에 대한 처우를 '모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에게 멕시코 감옥으로 이송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이었던 호아킨 구스만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각지에서 200t이 넘는 마약을 몰래 팔거나, 돈세탁과 살인 교사 등 총 17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구스만은 지하 터널과 트럭, 승용차, 열차, 비행기, 선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매했다. 하루에 현금을 가득 실은 비행기 세 대가 오갈 정도로 달러를 끌어 모았다. 일찌감치 멕시코 당국에 의해 붙잡힌 바 있는 그는 2001년과

2015년 두 차례나 멕시코 교도소를 탈옥한 전력도 있다. 이후 그의 신병은 2017년 1월 미국으로 인도됐다.

최근엔 그의 뒤를 이어 시날로아 카르텔의 실권을 잡고 펜타닐 등 치명적인 마약을 생산·밀매하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32)이 멕시코 군·경의 대대적인 작전 속에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중무장한 카르텔 갱단원의 강력한 저항에 시날로아주 쿨리아칸 일대가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호아킨 구스만의 메시지와 관련, "나는 그것(메시지)을 보지 못했다. 두고 보자"고 말했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 멕시코?, 그러나 이면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꼽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의지와 낮은 임금, 여기에 더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면에서 멕시코는 낮은 임금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각국의 기업들이 멕시코로 몰려오고 있지만 이같은 장점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의 속앓이가 상당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 공무원들의 부패와 늦장 일처리이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을 사실상 장악하다시피한 토착 갱단들의 갈취 행위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나마 안전하다는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사실상 사무실 용도이고 제조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이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들이다.

실제, 공장들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과 중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 모두가 강력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외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지역을 보면 누에보레온주, 과나후아토주, 티후아나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모두 국경과 가깝거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로 기업들도 당연히 이곳을 선호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들은 주요 갱단들의 근거지이며 경찰들의 지역 통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낮에는 어느 평온한 도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밤 만 되면



마치 경찰로부터 도시 치안권을 넘겨 받은 듯이 이들이 거의 통제하다시피 한다.

야간 외출은 일부 도심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을 장악한 갱단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들로부터 자리세, 또는 보호비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돈을 뜯어가는데 통상 1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금액을 책정하고 상납을 요구한다.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복을 하며 처음에는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에서 심한 경우는 방화, 살해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금은 대기업도 이들의 협박을 받고 있는데 액수는 소상공인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금액을 요구한다.

불응하면 운송용 차량을 불태우거나 사무실에 총알 세례를 퍼부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모 한국회사도 같은 협박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자 직원들을 협박하여 출근을 못하게 하면서 농장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결국 굴복하여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상납하고 있는데 지금은 매달 전기요금을 내는 것처럼 일상화 되었고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출근 하고 있다고 한다.

생계가 달려 있는 현지 직원들이

"무서워서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그들과 타협(?)할 것을 충고할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돈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로 악명이 높은 중부 모렐로스주의 Irapuato 등 일부 도시에서는 갱단들의 갈취를 견디다 못한 소규모 영세 사업주들이 문을 닫고 타 도시로 도피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뉴스 지면을 장식하곤 한다.

택시 운전사들도 대표적인 피해자들인데 지역 갱단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는 운행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빛내서 어렵게 장만한 택시로 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이들의 갈취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택시를 그냥 둘 수도 없어 결국 돈을 주고 운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대기업 식품회사 역시 이들의 협박과 자사 운송 차량에 대한 방화로 피해가 급증하자 해당 지역으로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었다.

멕시코 시티도 센트로 지역은 마찬가지다. 지역 갱단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따코를 팔아도 역시 자리세를 내야만 가능하다.

얼마 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게레로에 있는 두 개의 캐나다 광산 회사가 지역 갱단들로부터 갈취 협

박을 당하고 있다며 자국 기업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관심과 해결을 캐나다 총리가 직접 멕시코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국가간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올 만큼 심각하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닌, 단적인 예다.

이같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지역 갱단들의 갈취행위는 결국, 치안 확보에 실패한 현 멕시코 정부의 책임이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지역 경찰들의 부패도 크게 한 몫 하는데 경찰이 갱단들과 한 통속이 되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아예 일정한 돈을 상납받고 단속정보를 흘리면서 이들의 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좀 오래된 경우이지만, 마약범죄를 소탕하는 검찰 총장급 최고 책임자가 이들로부터 매월 수십만 달러 돈을 상납받고 단속 정보를 흘리다가 체포 되기도 하는 곳이 이곳 멕시코다.

지방의 경우 워낙 부패가 심하다 보니 시경찰을 믿지 못해 통째로 무장해제 시키고 주방위군이나 주 경찰이 투입된다. 그것도 못 미더워 한 달씩 순환 배치를 하기도 한다.

멕시코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큼 적극적이고 중국에서 철수하고 멕시코로 이전할 정도로 임금 또한 아직까지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역 갱단들의 협박과 갈취행위라는, 영업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멕시코가 투자하기에는 결코 좋은 환경만은 아니라는 점을 최근 들어 재 인식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8면에서 계속..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과의 자동차 분쟁에서 판정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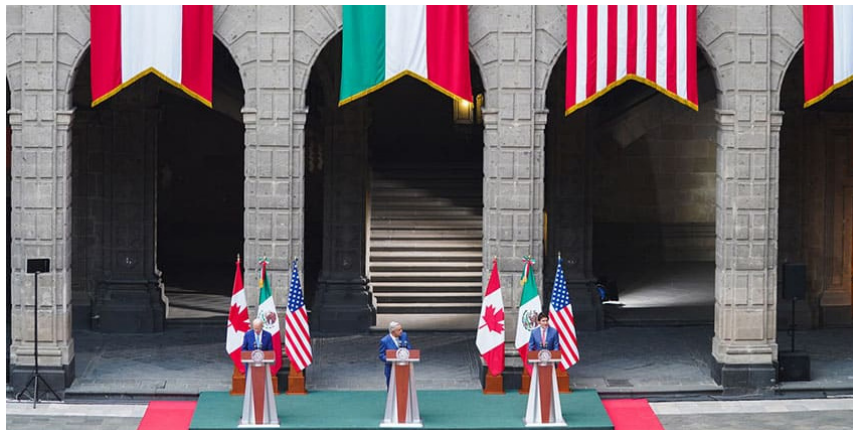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적용되는 차량 부품 내용 규정을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1년 전 자동차 분야 규정 해석과 관련해 미국을 제소한 바 있다.

2020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에 따라 차량 부품의 75%가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는 엔진이나 변속기 등 차량의 '핵심 부품' 75%가 규정을 충족할때는 관세 면제를 10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전체 차량의 지역별 비율을 계산할 때 "핵심 부품"만 적용해서 이를 반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분쟁이 일어났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정부의 해석이 멕시코와 캐나다 제조업체의 북미 면세 무역 자격을 훼손한다며 거부했다.

이같은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미국은 무역협정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결국 미국의 패배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온 후 미국 측은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정

으로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최근 퇴임한 멕시코 연방 경제부 장관 타티아나 클라우티에는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번 결정이 훌륭한 뉴스"라고 말했고, 캐나다 통상부 장관 메리 응은 성명에서 "캐나다가 현재 시행 중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USMCA에서 협상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멕시코 경제부도 즉각 성명을 내고 "앞으로 며칠 안에 멕시코는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의 플라비오 볼페 회장은 이번 분쟁 조정 결정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분쟁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한 배를 탔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별도의 USMCA 분쟁에서 멕시코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이 무역협정 의무와 모순된다고 주장,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세 나라는 분쟁 위원회의 개입 없이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멕시코 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7면에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공장을 짓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위 말하는 마피아 조직의 범죄 수익에 희생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피해를 당하는 기업들도 갯단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여 결코 외부로 발설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약 판매가 주 수입원이었던 갯단들에게 있어 근래 역대 정부들이 '범죄와의 전쟁'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익이 줄어들자 대체 수익원으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을 협박하거나 인신매매, 납치까지 일삼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쉽게 선택되는 것이 기업을 협박하여

갈취하는 행위다. 앞으로 갈수록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셈이다.

멕시코!, 참 아름다운 나라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저임금의 나라로 투자하기에는 최고의 매력적인 나라이지만 이면에는 이같은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이문제는 멕시코 라는 나라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범죄 행위에 대한 시민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말이면 갯단들이 차량 한 가득 선물을 싣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는데 치안에 동원된 경찰보다도 갯단들의 달콤한 선물 공세를 더욱 호의로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인식에서 이같은 추론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멕시코 최고층 Mitikah 상업단지 공식 개장

현재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 Mitikah 상업 단지가 14년의 공사 끝에 지난 금요일 문을 열었다.

그러나 단지가 위치한 Xoco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시위에 나서는데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Benito Juarez와 Coyoacan 자치구 사이의 경계에 쇼핑몰, 주택 및 사무실 공간이 포함되어 조성된 단지는 스페인 정복 이전의 토착 마을 부지로 Xoco 지역에 대형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없이 추진되며 논란이 되어 왔었다.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활용



수다. 단지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하면서 일반 주택에서는 제대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식 문을 연 Mitikah 쇼핑몰은 현재 67층 267m로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H&M, Victoria's Secret, Abercrombie 및 Hollister와 같은 유명 브랜드를 포함하여 5개 층은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소비 미국 '슈퍼볼' 시즌에 멕시코 아보카도 대량 수출

미초아칸에 본부를 둔 멕시코 아보카도 수출업자 및 포장업자 협회(APEAM)는 멕시코 생산자들이 제57회 슈퍼볼을 위해 최대 13만 톤의 아보카도를 미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최대 아보카도 생산업체가 물려있는 미초아칸은 이미 총 무게 6만4101t의 첫 출하량을 보냈다. 아보카도는 2월에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선적은 4주 전에 시작된다.

슈퍼볼은 미국에서 아보카도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기로 2022년 멕시코는 미국 아보카도 수입의 약 92%를 공급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멕시코는 평균적으로 북쪽 이웃 국가에 연간 102만 톤의 아보카도를 공급한다.

상징적으로,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의 APEAM 시설에서 주지사 알프레도 라미레스(Alfredo Ramirez)는 북미의 주요 아보카도 수출 브랜드인 아보카도 프롬 멕시코(AFM(Avocados From Mexico))가 홍보하는 아보카도의 첫 출하에 "첫 발차기"를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말 그대로 슈퍼볼 아보카도 시즌을 상징하는, 브랜드 로고가 새겨



진 모의 축구 스타일의 "킥오프"를 축구장에서 시연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수출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셈이다.

주지사는 미국 시장을 언급하며 "이번 킥오프는 업계가 항상 최종 시장인 소비자를 생각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품질의 아보카도는 세상에 없다"고 멕시코 산 농산품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내놓았다.

AFM 관계자는 과와몰레 3천만 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10만 톤 이상의 아보카도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멕시코 생산자들은 전 세계 34개국에 연간 168만 톤의 아보카도를 수출하고 있다.

미초아칸은 미국 농무부(USDA)가 미국 수입을 위해 할리스코 아보카도를 인증한 보낼 수 있는 유

일한 주다. (해당 인증이 있어야 미국으로 수출 가능하다)

할리스코 아보카도 수출 협회(APEAM)의 Javier Medina Villanueva 회장은 "미국 농업 검사관들이 멕시코 아보카도가 미국 과수원에 해로운 질병이나 해충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당시 APEAM의 호세 루이스 갈라르도 회장은 "할리스코나 미국 수출 인증을 요구하는 다른 멕시코 주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 품질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는 미초아칸에서 생산되는 아보카도만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지만 생산지역이 주변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나야리트, 콜리마, 푸에블라, 모렐로스주도 미국 수출을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해 멕시코 농무부는 미국 농무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멕시코의 주요 농산물 무역 파트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상품을 실어 보내고 있다.

비교적 덜 알려진 무역 상대국 중에는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으며, 멕시코 연방 정부는 이 대륙에 멕시코산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농촌개발부(SADER)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산 농산물은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 베냉, 적도 기니, 카메룬,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이집트, 모로코, 짐바브웨,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가나, 콩고 민주 공화국, 오만과도 거래를 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참깨, 쌀, 딸기, 옥수수, 사과, 카카오, 호두, 배당배, 닭고기, 바닷가재, 도미, 정어리 등이 수출 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Uber의 법적 승소 후 Cancun 택시들의 횡포 크게 늘어나..

멕시코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인 칸쿤과 키타나루주 주변에서 택시와 승차공유 서비스(우버택시) 간의 갈등이 최근 몇 주 동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당한 승객들이 일반택시 탑승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키타나루 택시 노조는 연방법원이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대중교통 면허 없이 주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반 택시 회사들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우버는 이런 과정없이

택시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지난 1월11일, 칸쿤의 두 연방 판사는 우버가 개인 서비스이며 대중교통과 같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2021년 대법원 판결에 인용하면서 우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일반 택시 기사들은 폭력적 보복을 일삼고 있다.

승객들이 우버를 타고 가면 곧바로 뒤따라와 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놀란 승객들의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퍼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키타나루에서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키타나루 택시 운전사들은 또 다른 카르텔일 뿐입니다. 타지 마세요"라고 한 트위터 사용자가 말한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버 택시에 대한 협박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버택시의 바퀴에 펑크를 내거나 아예 탑승을 못하게 막아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항으로 향하는 승객 중에는 경찰의 동승을 요청하여 함께 가기도 한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여 시민들은 1월27일 금요일 하루 종일 택시를 이용하지 말자는

구호를 외치며 일반택시 탑승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금을 속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과오는 개선하지 않고 우버택시를 공격하는 행위는 비겁한 행위"라며 시민들은 택시노조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택시노조는 성명을 통해 "택시기사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소득원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멕시코로의 '사업 여행'은 2022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거의 50만 명의 사업가들이 작년년부터 다시 멕시코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멕시코 내무부 이민정책과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멕시코에 입국한 비즈니스 관광객은 46만3508명으로 2021년 전체에 비해 107% 급증했다.

2022년 1월에는 20,559명의 출장자가 멕시코에 도착했는데 해가 갈수록 아시아에서 멕시코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방문객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11월에는 거의 58,000명의 비즈니스 여행자들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외환회사인 모넥스(Monex)는 2022년 12월 멕시코



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 교통 중 21%가 근교에서 주로 연료를 공급받는 비즈니스 여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멕시코 시티, 누에보 레온의 몬테레이, 키타나 루의 칸쿤, 케레타로의 케레타로, 할리스코의 과달라하라 목적지로 향했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은 특히 2022년 비즈니스 여행객 238,715명의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등록된 것보다 118% 높은 수치이지만 2019년 한 해 동안 입국한 비즈니스 여행객과 비교했을 때는 49% 수준에 불과하다.

알렉산드рина 살세도(Alejandrina Salcedo) 멕시코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12월 비즈니스 관광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Banxico의 2022년 3분기 지역 경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트렌드와 청구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관광을 설명하고 있는데 4개의 북부 도시는 전염병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했다.

이 도시들은 수출 지향적이며(치와와는 멕시코 수출 1위 주), 제조업 생산에 특화되어 있어 근거리 무역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근거리 무역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다른 두 도시는 음식과 음료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셀라야, 과달라하라, 할리스코다.

멕시코 국내 최고 공항 운영사인 아수르, GAP, OMA는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12월 승객 증가율이 20% 이상을 기록했다.

아수르와 GAP는 칸쿤과 티후아나의 관광업에 힘입어 성장한 반면, 멕시코 중북부 지역의 13개 공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OMA의 성장은 출장에 의해 증가한 점이 비교되고 있다.

시티정부, 태양광 발전 적극 활용한다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큰 식품 도매시장인 Central de Abasto 시장에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올해 중반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18메가와트에 이르는 태양열 발전소가 이즈타팔라파 자치구에 위치한 Central de Abasto의 지붕 위에 설치되고 있다.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열 패널은 2월 첫째 주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8메가와트가 4월에 가동될 예정이다.

6억 페소(미화 3,180만 달러) 규모의 태양열 패널 설치가 완공되면 소비 전력의 약 30%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연방 에너지부가 이 프로젝트에 5억 페소를, 멕시코 시 정부는

나머지 1억 페소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태양열 패널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규모 공공 단지에는 이같이 청정에너지 설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인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Central de Abasto에 설치된 태양열 시설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약 400개의 축구장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는 센트럴 데 아바스토의 지붕에는 30,000개 이상의 중국제 태양 전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에서 사용하는 많은 양의 전기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 현재보다 값이 싼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시장 상인들은 현재 공공 지역에 대한 요금과 개인이 사용하는 요금을 별도로 청구받고 있는데 비싼 요금으로 불만이 높았었다.

디에고 리베라의 딸 '마린' 98세로 사망

유명 예술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와 멕시코 작가 Guadalupe Lupe Marin의 딸인 과달루페 리베라 마린이 일요일에 사망했다. 향년 98세

국립미술원(INBAL)의 루치나 히메네스 소장은 리베라를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추모했다.

모레나의 상원의원 이피게니아 마르티네스는 그녀를 "지칠 줄 모르는 문화 추진자", 전 모렐로스 주지사 그라코 라미레스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더 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 투사이며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다"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리베라 마린은 부모의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했는데 성공적인 변호사, 정치인, 문화 후원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의 법학 교수직을 맡



기도 했다. 1924년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난 리베라 마린은 UNAM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에도 관여했는데 그녀는 제도혁명당(PRI)의 일원으로서 멕시코시티의 상원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디에고 리베라 재단을 설립해 아버지의 업적 보존에 나서기도 했다.

1989년에 회고록도 출간했는데 《Un río, dos Riveras》를 포함한 여러 소설과 논픽션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국가 문화부는 성명을 통해 그녀를 기리는 기념식을 곧 열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한국, 중국, 인도, 스위스와 투자 협정 갱신

멕시코 정부는 한국, 중국, 인도, 스위스와 맺은 4개의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APPRI) 현대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경제부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 만료된 멕시코의 기존 APPRI 대부분을 점검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APPRI는 투자 진흥 및 상호 보호를 위한 것으로 투자 흐름을 촉진하고 외국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국제 조약이다.

APPRI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멕시코의 외국인 자본 유치 역량을 강화하며 해외 멕시코 투자자들의 투자 조건을 개선하기도 한다.

2021년에 홍콩은 독일, 중국, 한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영국, 스웨덴과 함께 멕시코와 APPRI를 체결한 30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멕시코가 서명한



30개의 APPRI 중 25개가 만료되었다.

1995년부터 멕시코는 여러 APPRI에 가입했는데 현재 30개가 있지만 25개는 기한이 만료된 상태다.

멕시코는 결국 2000년 이전에 서명되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보호 장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APPRI를 유효하게 재협상할 계획이다.

경제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1996년에 스위스와 첫 번째 APPRI에 서명했다. 25개의 만료된 계약 중 많은 부분이 휴경 상태에 있으며 어느 쪽도 철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인도는 2018년에 만료된 멕시코와의 조약을 2019년에 종료했다.

Trade and Access Consulting 이사인 Cesar Guerra는 El Financiero 신문에 "각각의 계약이 다르지만 모두 APPRI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USMCA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구제받기도 한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가장 오래된 조약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와 멕시코

간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제3자 자금 조달을 규제하고 분쟁 중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를 확보하고자 한다.

경제부의 예비 수지에 따르면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멕시코가 23개의 새로운 국제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서명된 협정 측면에서 세계 7위 경제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WTO에 따르면 멕시코의 활성 조약, APPRI 등의 총 수는 355개이며, 이들의 결합된 경제는 세계 무역의 59%, 세계 GDP의 60%, 멕시코 제품에 대한 13억 명의 잠재 고객을 나타내고 있다.

Tesla의 하청 공장 중국 업체, Monterrey에 공장 착공

테슬라 하청공장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 노아아이텍(Noah Itech)이 지난 월요일 멕시코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1억달러를 투자하게 되며 자동화 설비를 갖춰 5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수도권에 위치한 이 공장은 역시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에 Tesla의 새로운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위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Tesla는 General Motors, Facebook 및 Google과 함께 Noah Itech의 주요 고객 중 하나다.

주지사 Samuel Garcia는 공장 착공식에서 "Nuevo Leon은 거의 매주 새로운 회사의 투자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최근 각국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Santa Catarina는 미국으로의 빠른 운송

이 가능한 Saltillo-Monterrey 구간의 일부"라고 말했다.

특히, 주지사는 "Noah Itech의 공장이 착공되면서 Nuevo Leon 주정부가 주변 도로와 텍사스주 Laredo까지의 순환 도로를 개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테슬라 공장의 유치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반 리바스(Ivan Rivas) 주 경제부 장관도 "가장 잘 준비된 노동력과 인프라와 인적 자원 덕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다"면서 "매년 누에보레온에서 15,000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서 20,000명의 기술자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Noah Itech Mexico의 Fang Te Chou 부매니저는 "Nuevo Leon은 다른 곳과 비할 데 없는 훌륭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이곳을



선택했다"면서 "3C 제조 산업(컴퓨팅, 통신 및 소비자 가전)을 위한 설계, 설치 및 자동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이테크 제품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기업인 만큼 제품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uevo Leon주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지자체 및 주 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충원을 관리하고

교육해주는 혜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임금(ISN)과 관련된 세금 인센티브도 있으며, 일명 콜롬비아 다리(텍사스 주 라레도 시의 미국-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4개의 국제 차량 교량 중 하나)로 알려진 도로를 이용할 경우 신속한 통과가 가능하며 통행료에 대한 별도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이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누에보 레온주가 최근 들어 더욱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으로 인한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멕시코만한 곳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한국 기업을 포함, 각국 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했거나 할 예정으로 주 정부의 유치 의욕과 맞물려 기업들의 문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기술 믿고 세웠는데...에콰도르 최대 수력발전소 붕괴위기

에콰도르가 중국 기업에 맡겨 건설한 최대 수력발전소가 완공 후 10년도 안 돼 붕괴 위기에 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목표로 세계 곳곳에 건설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정작 기술력 부족으로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에선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발전소는 에콰도르가 27억 달러(약 3조3천억 원)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개발은행에서 이율 6.9%에 빌려 건설했다.

중국 국영기업 '중국수전'은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현지에 불러들여 2010년부터 2016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지만, 완공 직후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

댐에서 수천 개의 균열이 확인돼 붕괴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수도 키토에 위치한 산프란시스코대학의 공학자 파브리시오 예페스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댐이 당장 내일 무너질지, 혹은 6개월 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에콰도르의 전력회사는 중국이 수력발전소에 설치한 8개의 철제 터빈에서도 1만7천 개의 균열을 발견했다.

에콰도르 측은 중국제 철강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기 이전에 이 같은 하자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리난도 산토스 에너지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지어진 발전소는 죽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리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콰도르 검찰은 중국 차관을 받고 댐을 건설한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 기간 중국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180억 달러(약 22조2천억 원)의 차관을 도입했다.

코레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부패 혐의로 기소됐지만, 벨기

에로 망명했다.

검찰은 코레아 정권 고위인사 주변 인물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한 중국 국영기업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WSJ은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서 균열이 발견된 닐름-젤룸 수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 업체가 발전소를 완공한 지 4년 만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천400만 달러(약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우간다도 중국기업이 지난 2019년 나일강에 건설한 수력발전소에서 500개 이상의 결함을 발견했다.

또한 중국이 우간다에서 건설 중인 또 다른 수력발전소는 균열을 비롯해 불량 케이블 설치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늦춰지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정부는 올해 초 중국에 예정대로 차관을 갚았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남미 공동 통화 개발 추진하기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남미 지역 공동 통화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외유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2일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미 공동 통화 개발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양국의 전략적 관계 회복과 경제 통합을 골자로 하는 문서에서 두 나라는 교역 장벽을 극복하고, 규율을 단순화·현대화하며, 현지 통화 사용을 장려하기로 하고, 금융 및 상업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남미 공동 통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이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23일 함께 진행한 공동 인터뷰에서도 양국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동 통화 개발을 연구 중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남미 공동 통화

에 대한 아이디어는 원래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부 장관 등이 작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나왔으며, 룰라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중 언급한 내용이다.

브라질 현지 언론은 룰라 대통령의 이번 아르헨티나 방문은 남미 내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인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징적 외교 행보라고 전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념적인 이유를 내세워 단 한 번도 아르헨티나에 방문하지 않았다. 룰라 대통령은 23일 저녁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기업

인 약 300명과 만날 예정이며 24일에는 제7차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2019년 Celac에서 탈퇴했었다.

룰라 대통령은 이어 25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방문해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에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브라질 외교부는 룰라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방문에 앞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먼저 방문하는 것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주변국과의 관계 회복 및 유대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구)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써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